

## 국민을 최우선 고객으로 삼아 진력을...



### ▲ 이주호 원장

2005 건국대학교 대학원/수의학 박사  
 2001~2002 수의부이사관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장(CVO)  
 2002~200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 및 축산물검사  
 부장, 부이사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직무대리  
 2008~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가 통합하여 국내 유일의 중앙 수의전문기관으로 탄생 된지 올해로 10년째다. 두 기관의 통합으로 업무영역의 확장, 예산·인력 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의 과학 기술의 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본고는 지난 9월 16일 제5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주호 전 질병관리부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주호 신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1953년생으로 건국대 수의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위생과장(CVO), 검역원 축산물 검사부장, 질병관리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주호 원장은 공직 30여년 동안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의와 검역관련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수의·검역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 받아 왔다.

이주호 원장은 최근 멜라민 문제 등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국민을 위한 검역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다짐하였다.

##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이주호 원장은 내외부 만족도 제고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검역원의 향후 운용전략을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가 식품까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위생을 더욱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더불어 외적으로는 농축산물의 수입급증과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해외 병원체의 유입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역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 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최근의 수의분야 영역확대와 식품관련 사회문제의 대두에 따른 국민적 관심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전체를 최우선 고객’으로 하는 최고의 수의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에서 검역원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짧은 시간 내에 청정화 될 수 있었으며, 외국에서도 우리의 방역능력을 인정받은 바가 있듯이 최고의 수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HPAI 재발 방지에 주력

이주호 원장은 HPAI는 사계절 언제든지 국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금년 발생되었던 예를 볼 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방역기관에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방역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겠지만 농가들이 차단방역에 대한 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년 4월 발생되었던 HPAI 사태와 관련해 이주호 원장은 초동방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연중상시 방역’으로 발생위험

을 최소화시키고, 만약 AI 의심축이 신고 되었을 경우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해 관련공무원을 즉시 농장에 상주시켜 임상관찰을 강화시키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초동방역팀’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HPAI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1차 검사기능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이관하여 현장중심 검사를 시행하고 2010년까지는 고병원성 여부 확인검사 이전 단계의 검사업무를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시험기관으로 도약

검역원은 앞으로 미국의 질병진단센터(CDC)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 시험기관으로 탈바꿈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KOLAS)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임을 증명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서를 획득하면서 국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인정받은 분야는 미생물시험 분야로는 살모넬라, 항생제내성균 등 총 8종이며, 현재 중점사항으로 추진 중인 브루셀라병 및 돼지열병에 대한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표준연구실 인증획득에도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주호 원장은 질병 방역관리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등 새롭게 떠오르는 업계의 당면현안을 생산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